

연변룡정팀, 남경성에서 시즌 첫 승 쏘아올렸다!

— 변화 보인 연변팀, 원정서 승점 쌓기 성공



▲ 경기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김봉길 감독

▲ 결승골을 터뜨린 로난

3월 23일 저녁 7시 30분,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남경시 오대산체육장에서 남경도시팀과 2024 시즌 제3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이는 연변팀의 올 시즌 세번째 원정경기이고 남경도시팀의 첫 홈경기이다.

장지후축구팬클럽 회원들을 주축으로 수백명 축구팬들이 원정에서 연변팀을 응원하였다.

연변팀은 동가림을 풀키퍼로, 한광휘, 왕봉, 서계조, 허문광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왕박호, 리호걸, 리강, 왕성패로 중앙선을 탄탄히 다지는 한편 로난과 이보를 진두에 내세운 4-4-2 진세로 기회를 노렸다. 남경도시팀은 21번 제우희를 문지기로, 두국량, 왕호연, 양하, 오누로 수비선을, 마터우스, 석립산, 황진비, 황봉으로 중앙선을, 류가휘와 손사명을 선두에 내세운 이상한 4-4-2 진세로 맞섰다. 이상한 점은 수비선의 왕호연, 양하, 오누는 공격수들이고 공격선의 황봉, 류가휘, 송사명은 수비수들이라는 것이다. 출전 명단을 의심할 정도였다.

만도가 주심을, 리근과 장흡심이 변심을 맡은 이번 경기는 평상 19도의 날씨에 작은 비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탐색전이 필요 없이 팽팽한 밀고 당기기로 시작된 경기에서 첫 슈트는

경기 1분 만에 남경도시팀의 마터우스의 헤딩으로 완성되었다. 5분경, 중앙선에서 로난의 한차례 실수로 마트먼 선제골을 내줄 뻔하였다.

안나게 아니라 남경도시팀의 선수 진영은 출전 명단의 진영과 확연히 달랐고 지난해 홈장에서 남경도시팀에 결승골을 넣었던 김태연은 연변팀의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9분경, 한차례의 프리킥 기회에 연변팀은 한차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한광휘가 날린 공이 상대 키퍼의

로출된 상대의 허점을 은근히 넘두에 두고 내심하게 기회를 노렸다. 48분경 한차례의 패스 반격 기회에 남경도시팀이 마트먼 선제골을 뽑을 뻔하였다. 연변팀 대인방어의 허점을 리용한 진공이었다.

53분경부터 55분까지 연속 세번의 코너킥 기회가 연변팀에 차례졌고 로난과 왕박호의 헤딩슛이 아쉽게 풀로 연결되지 못했다. 56분경, 리호걸이 중앙선 부근에서 차단한 공을 한광휘가 오른쪽 변으로 돌파한 이보

이어갔다.

“승리하자! 연변!” 팬들의 응원 속에 68분경, 왕박호가 금지구역 밖에서 상대의 왕호연(레드카드)에 침범당하면서 절호의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이보의 슛을 상대 키퍼가 몰수했다. 1:0으로 앞선 가운데 11대 10으로 수적으로 우세까지 가져오면서 연변팀은 승기를 단단히 잡은 모습이였다. 그러던 와중에 리호걸을 침범한 마터우스가 옐로카드를 받았고 상대에 밀려 넘어진 왕박호가 석연치 않게 옐로카드를 받는 장면에 팬들은 어리둥절해야 했다.

허문광, 왕박호 등 젊은 선수들 대거 기용 이보 도움 기록, 로난 '데뷔골'이 결승골로

손에 맞춰 튕겨나왔는데 연변팀의 선수들이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경기가 점차 흘러가면서 연변팀 선수들의 배합은 비교적 원활해졌고 공이 상대 문전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변팀 문전도 위기가 많이 도사렸다. 왕봉과 서계조가 만도가 주심을, 리근과 장흡심이 변심을 맡은 이번 경기는 평상 19도의 날씨에 작은 비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탐색전이 필요 없이 팽팽한 밀고 당기기로 시작된 경기에서 첫 슈트는

에게 먼거리 패스로 넘겼고 후자가 랭정하게 풀문 앞의 로난에게 크로스, 로난이 오른발로 공을 가볍게 상대의 골문 안에 밀어넣었다.

1:0! 연변팀이 앞서나가면서 추격권을 남경도시팀에 넘겨주었다.

추격에 나선 남경도시팀은 패스 실수가 량발하면서 긴장감이 력력했고 연변팀은 보수적인 방어가 아닌 기회잡기로 상대를 압박하였다.

64분경, 2번 현지진으로 체력이 떨어진 한광휘를 교체 출전시킨 연변팀은 차분한 방어 반격으로 경기를

[특독 관전평]

열심히 뛰는 자 승리할 자격 있다!



“축구는 열심히 뛰는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스포츠”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어려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한 경기였다.

지난 23일 저녁 7시 30분에 남경시 오대산체육장에서 펼쳐진 2024 시즌 제3라운드 경기에서 '원팀으로 뭉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남경도시팀을 1대0으로 제압하고 올 시즌 첫 승을 거뒀다.

변화가 필요했던 연변팀은 이날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었다. 지난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천창걸이 결장하고 김태연도 대명단에 빠진 가운데 왕박호, 왕성패, 허문광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기용됐고 리호걸이 선발로 출전했다.

그리고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전한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올 시즌에 갓 합류한 리호걸도 첫 라운드 경기에서 65분경에 후보로 교체 출전해 뛴 후 이번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큰 활약을 보여주었다.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전개할 때 측면 돌파로 크로스를 올려주고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대인방어에도 참여한 왕박호의 활약 역시 단연 눈에 띄었다.

기술통계표를 보아도 올 시즌에 대거 물갈이를 감행해 강팀으로 평가받는 남경도시팀을 상대로 조금 더 우세한 모습

을 보였다. 공 통제율이 52%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고 슈팅과 유효슈팅 수도 각각 17대 11, 7대 3으로 앞섰다. 상대팀의 341회 패스 차수에 비해 약간 많았던 384회를 기록한 연변팀은 이날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기회를 노렸다. 한광휘의 발끝에서 시작해 이보의 칼같은 측면 크로스를 거쳐 로난이 마무리를 지은 결승골은 그야말로 매 한 번의 패스가 자로 잦듯 깔끔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연변팀이 '원팀'으로 뭉쳐 연변팀다운 투지를 보이며 첫 승을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 새로운 변화를 꾀해 승리를 이루어내면서 사기를 올렸다.

더구나 올 시즌 첫 홈장인 만큼 한 골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밀어붙인 남경도시팀을 상대로 연변팀은 더욱 아나가 되어 뒤문을 걸어 잠갔다. 이와 함께 승리를 지키기 위해 이 악물고 뛴 선수들은 비 속에서 끝까지 목소리 높여 응원한 장지후축구팬들을 위수로 한 원정 축구팬들에게 승점 3점으로 보답했다.

한편, 시즌 첫 승을 쏘아올린 연변팀은 다음 라운드(3월 30일) 경기를 상해가정회룡팀과 치른 후 5라운드(4월 5일) 경기는 홈장으로 돌아와 펼쳐지게 된다. / 김가혜기자

2024 여자슈퍼리그 개막 장춘여자축구팀 1차전서 무승부

3월 24일 15시, 2024 여자슈퍼리그가 펼쳐진 가운데 장춘대중탁월여자축구팀(이하 '장춘여자축구팀')은 1라운드 하남만선산여자축구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최종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중 장춘여자축구팀은 수비선에서 실수가 비교적 많이 나오면서 세번이나 뒤처진 상황을 연출하다가 세번을 따라잡았다. 특히 팀을 위해 골을 넣은 라이자과 곽남은 여자슈퍼리그 개인 첫 골을 기록했다.

경기후 장춘여자축구팀 조창광 감독은 “우리 팀은 경기중에 나온 몇가지 실수가 모두 상대에게 기회를 잡히면서 실점을 했지만 선수들의 압박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경기전의 포지나 요구를 잘 실행한 것은 격려할 만하다.”고 하면서 “팀의 수비라인을 개선해 다음 경기에서 선수들의 활약이 갈수록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오건기자



장춘·길림·연변 조선족 배구경기로 친목 다지다

— 조선족 배구 친선경기, '스포츠와 문화 교류로 하나된 축제'

23일 오후, 2024년 주조집 장춘, 길림, 연변 3개 지역 조선족 배구협회 친선경기가 장춘시조선족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성내 3개 지역 조선족 선수들이 스포츠와 문화 교류가 하나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장춘조선족배구협회 준비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경기에 중국조선족배구협회 연변지역 오영환 회장을 비롯한 화룡배구협회와 남지영 회장을 비롯한 길림시조선족배구협회의 우수한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 열띤 경쟁을 펼침으로써 뜨거운 배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간의 체육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배구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도우며 한마음한뜻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

식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중국조선족배구협회 장춘지역 책임자이며 장춘시북원구조선족소학교 교장인 김영철이 개막식에 참석한 장춘시 조선족사회 각계 책임자와 래빈들을 소개했다.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김룡규 상무부회장은 이번 활동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과 더불어 배구협회 지원 차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경기는 여자부의 경기로 막을 열었다. 경기전 몸풀기와 연습 때만 해도 선수를 깔리 웃으며 친선경기의 여유를 보였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투지가 넘쳤다. 여자 배구의 매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끈질기고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남자부 경기 역시 흥미진진했다. 친선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로 이어졌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 팀이 끈질긴 투혼을 발휘하여 관중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친선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3개 지역 배구 동호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체육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 교류와 융합은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 글 사진 오건기자

